

# PUBLIC ART

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 
WWW.ARTINPOST.CO.KR FEBRUARY 2018

137  
201802



논문, 다시 담론으로 Ⅱ

back to the  
discourse

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7

another view

# MUST-KNOW ARTIST COLLECTIVE IN THIS ERA

## 혼자보다 여럿이 좋은 그들

공수의 손발이 척척 맞는 스포츠 경기나 뮤지션 그룹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떠올려 보자. 하나 보다 여럿일 때 빛나는 '팀플레이'는 쉽사리 눈길을 사로잡는다. 아트 씨에서도 외로운 천재 아티스트의 길 대신 각자의 재능을 모아 더 큰 시너지를 내 주목받는 콜렉티브형 작가들이 많아지고 있다. 단박에 길버트 앤 조지(Gilbert & George)나 게릴라 걸즈(Guerrilla Girls)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시작이 나쁘지 않다. 하지만 이제 당신의 리스트를 업데이트해보는 것은 어떨까. • 기획·진행 이가진 기자



Blast Theory by Andrew Festa



Chim↑Pom



Elmgreen & Dragset Photo: Claire Dorn



Gelitin Studio 2008 Photo © Maria Ziegelböck



Semiconductor



Troika

**Blast Theory** 블라스트 씨어리

**Chim↑Pom** 침↑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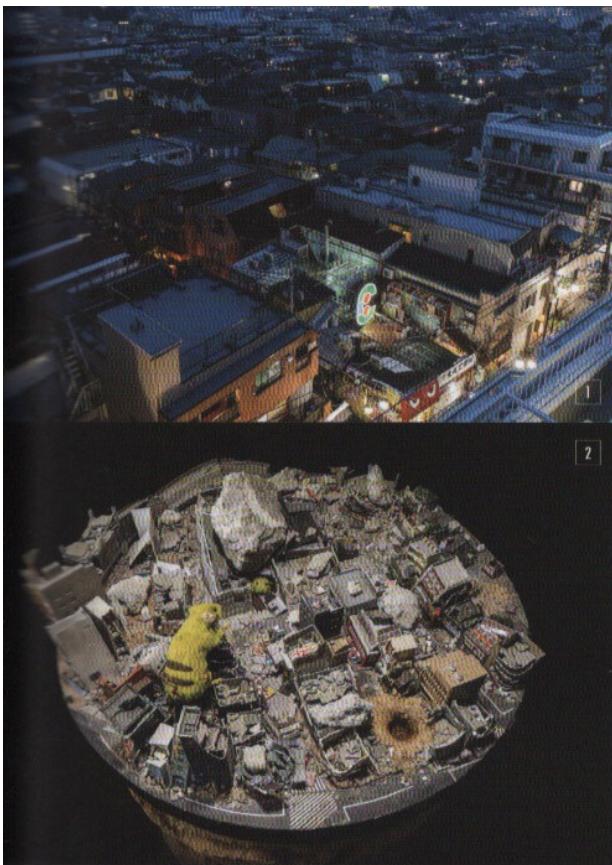
**Elmgreen & Dragset** 엘름그린&드래그셋

**Gelitin** 겔리틴

**Semiconductor** 세미컨덕터

**Troika** 트로이카

# Chim↑Pom



## 침↑풀

2005년 도쿄에서 6명의 작가가 결성한 침↑풀(Chim↑Pom)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작업을 해왔다. 세계를 순회하는 전시 겸 프로젝트, 〈Don't Follow the Window〉가 대표적이다.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 지역 내에서 진행된 이 작업은 일반적인 방식의 관람이 불가능하다. 그 지역으로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된 까닭에서다. 파괴와 오염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때, 예술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작업은 “재난의 기념비”이자 “지속적인 결과물”로서 기능한다. 2016년 ‘시드니 비엔날레(Biennale of Sydney)’에서는 360° 비디오 형식으로 그 내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〈A walk in Fukushima〉를 선보이는 등 이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이다.

그 이전에도 그들은 죽은 쥐를 박제해 캐릭터 피카츄처럼 보이게 만들어 후쿠시마의 접근금지 지역으로 몰래 들어가거나, 끼미귀 떼를 이끌고 도쿄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사회 정치적 문제, 소비주의나 자본주의가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소 파괴적인 태도로 다뤄왔다.

순전히 그 읽는 소리가 좋아 지었다는 그룹 명칭은 일본어 속어로 ‘남성의 성기’를 뜻하는데, 이런 즉흥성과 교묘하고 전복적인 유머가 침↑풀의 정체성을 명백히 보여준다.

1. Chim↑Pom (PAVILION) 2012, 2017 © Chim↑P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IN-TO Production, Tokyo photo by KENJI MORITA 2. Chim↑Pom (SUPER RAT -Scrap & Build-) 2017 © Chim↑P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IN-TO Production, Tokyo photo by KENJI MORITA 3. Flag designed by Naohiro Ukawa with first viewers, Fukushima exclusion zone, Japan Courtesy of Don't Follow the Wind

